

"적폐를 걷어내고, 민중 세상으로!"

8 노동과세계 변백선 | © 승인 2017.06.13 19:16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13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적폐를 걷어내고, 민중 세상으로 2017 민생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적폐를 걷어내고, 민중 세상으로 2017 민생대회'가 열렸다. 민생대회에 참석한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보장 △백남기농민 살인사건 책임자 처벌 △밥쌀 수입 즉각 중단 △노점 단속 중단 △사드배치 철회, 한반도 평화 실현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후 시청을 향해 거리 행진을 하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다.

앞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과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은 '노점상 운동 30년, 6·13 정신 계승 전국 노점상 대회'를 열고 "노점상 운동 30년을 넘어 당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빈곤과 차별의 벽을 깨부수어 나갈 것"이라며 "30년 전 금잔디광장에서 울려 퍼진 함성을 이어받아 앞으로 30년의 새로운 노점상운동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적폐를 걷어내고, 민중 세상으로 2017 민생대회'에 참석한 민주노련과 전노련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2017 민생대회 무대에 올라 최저임금 1만원과 사회적 총파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변백선 기자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오른쪽)과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밥쌀 수입 반대와 백남기 농민 살인사건 책임자 처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생대회를 마친 후 시청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생대회를 마친 후 시청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생대회를 마친 후 시청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생대회를 마친 후 시청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2017 민생대회에 앞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과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은 '노점상 운동 30년, 6·13 정선 계승 전국 노점상 대회'를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점상 30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수 우리나라와 함께 합창공연을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련과 전노련 조합원들이 노점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련과 전노련 깃발이 무대로 향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련 김영표 위원장과 전노련 조천준 위원장이 새로운 노점상운동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